



## 인도네시아, 양식사료수요로 인해 대두박 수입량 연간 5% 증가

(2013.2.19. 로이터통신)

원제: Indonesia soymeal imports to rise 5 pct a yr on fish food demand – RTRS  
19-Feb-2013 16:40

인도네시아 사료제조업협회(GPMT)에 의하면 어류에 대한 세계 수요의 증가 및 인도네시아 양식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두박 수입량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5%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. UN FAO에 의하면 2012년 세계 어업 생산량은 1.3% 증가한 약 1억 5,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증가량은 모두 양식업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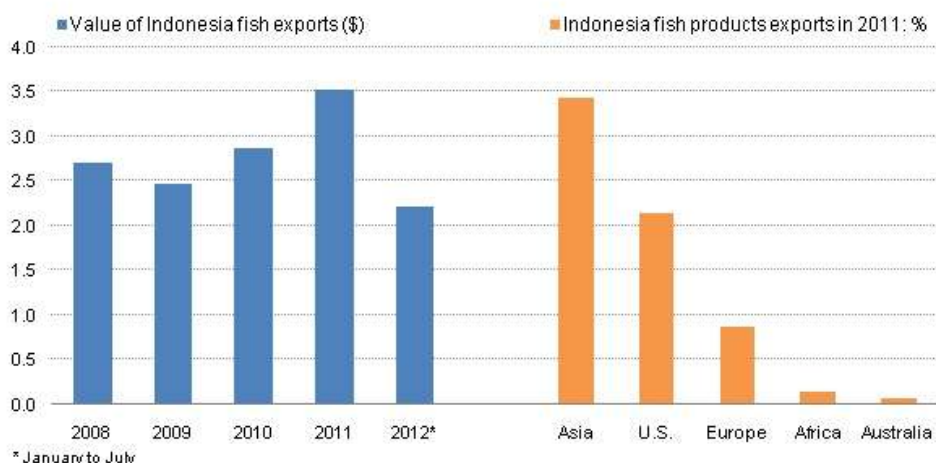
인도네시아 사료제조업협회의 양식사료부서 담당인 Denny Indradjaja는 사료용 소비를 위한 대두박 수입량은 전년대비 6% 증가한 330만 톤으로 전망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“정부가 어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이 성장할 것이다.”

그는 양식업계에서 소비하는 대두박이 전체 대두박 수입량의 약 1/5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이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. 현재 대두박 수입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문은 양계업이다. Indradjaja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전에는 대두박을 주로 미국에서 구매했으나 2012년 가격이 인상된 후 브라질과 인도가 미국을 대체하게 되어 현재 전체 수입량 중 75%를 브라질과 인도로부터 수입한다고 한다. 미국 대두박 가격은 가뭄으로 인해 대두 공급량이 부족해진 후 2012년 9월 사상최고치에 도달했다.

그래프. 인도네시아 어류 수출금액 및 수출대상국

### Indonesia fish



Sources: Asosiasi Pengusaha Pengolahan & Pemasaran Produk Perikanan Indonesia (AP5I) Reuters graphic/C Trevethan

인도네시아 정부는 용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업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1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양식학회(Indonesian Aquaculture Society) 회장인 Rokhmin Dahuri(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)는 인도네시아의 어류 생산량은 2012년의 1,500만 톤에서 약 1/4 증가한 1,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“인도네시아는 해안지역의 양식 잠재력이 아주 크며 잠재적 양식 생산량이 연간 약 6,000만 톤에 이른다.”

그는 또한 민물 및 해수 어류 생산량이 7% 증가한 600만 톤이 될 것이며 양식업 생산량은 38% 증가한 1,3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인도네시아는 17,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므로 양식업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고 중국 및 호주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. 또한 국내 어류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어류 소비량은 연간 약 32kg이다.